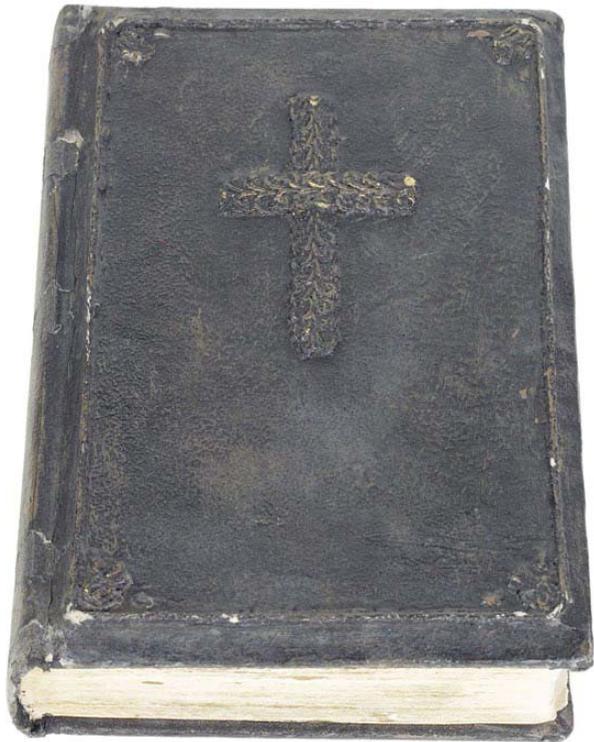


크리스천의 일상다반사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읽기

☞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읽기는 가장 익숙한 일상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 경건해 보이는 일상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고 고요한 가운데 묵상한 말씀이 분주한 일상으로 가득찬 하루를 지탱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갈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경 읽기라는 일상이 경건하기만한 그래서 성찰이 필요 없는 일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 때 성경을 기준으로 성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성경 읽기는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또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과연 성경 읽기라는 기독교인의 가장 익숙한 일상의 행위를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찰할 때,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고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읽기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타락은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오해하지 말것은 성경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의 방법이나 목적 또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일 가운데 구속을 통해 회복될 영역은 어떤 것일까.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창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창조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자연만을 뿐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기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리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성경 읽기와 다른 일상의 일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빴던 마르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자신의 말을 듣는 것에만 집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 같은 이야기(눅 10:38-42)는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읽기가 밥상을 차리고 식사 후에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일보다 더 거룩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 무수리 같은 "마르다 신세"를 벗어나 핸드 드립한 커피향을 맡으며 성경책을 펴 놓고 우아하게 묵상하는 "마리아 품위"를 언제나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한숨 짓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 방금 묘사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마르다도 빨리 이 가치 없어 보이는 부엌 일을 끝내고 마리아 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내 빨리 이 가치 없는 일을 끝내게 해달라고 불평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알려주신다 (개역개정 난외주 참고). 이 말씀은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역 일 한 가지만 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집안 일에 바빴던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지적하신 것이다. 물론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새번역)라는 말씀은 여전히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 "말씀 듣기" - 가 마르다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 "준비하는 일" 또는 "봉사하는 일"(개역개정 난외주 참고) - 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든지 항상 적용되는 보편적인 설명이기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순간에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그 상황에 대한 특수한 말씀으로 보인다. 특히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 나오는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더욱 그렇다. 누군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성

경을 따르고자 했던 종교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의 행동보다 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일상의 모든 일이 똑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해도, 각 행동들은 그 행동이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다.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 만큼이나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설교 시간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일인것 처럼 말이다. 요컨대, 한 가지만이라도, 즉,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적절한 상황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성경 읽기 만큼이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손님 접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 보다 더 성스럽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때, 본질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를 설거지 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주는 첫 번째 통찰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 읽기에 주는 두 번째 통찰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성경 읽기와 다른 일상의 관계에 대

해서 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행위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통찰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덜 경건하고 심지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은연 중에 생각한다. 성경을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는 법은 기도하며 읽으며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것이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문학자들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들의 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며 이성을 통해 말씀을 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 읽기에도 성숙 이원론이 영향을 준 결과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만일 성경의 학문적 연구가 잘못되는 것은 윌터스의 개념을 빌리면 학문적 성경 연구의 방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지는 것이지 학문적 성경 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 그것의 구조의 문제 - 는 아니다. 지성과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에 따라 만드신 구조의 요소로, 성경을 지적으로 읽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감성과 감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탐구하는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난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지식을 사용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읽을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인정하는 성경 읽기일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 읽기에 주는 세 번째 통찰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신이 창조하신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신론적인 창조가 아니라, 실제 시공간에 계속 개입하시는 섭리적인 창조라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한다. 성경이 구체적인 시공간에 개입하신 신적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영원한 진리를 가장 적절히 깨닫기 위해 그 성경이 일차적으로 주어주었던 역사와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for)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to) 주신 말씀은 아니다." 성경이 일차적으로 기원전 수천년 전부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to) 주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to) 주신 것은 아닌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21세기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는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물론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인 문제들 - 예를 들어 죄의 문제 - 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를 위한(for)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적절히 읽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성경을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신론적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나가며

성경 읽기가 다른 일상보다 더 경건한 행위는 아니다. 모든 일상이 똑같이 경건한 주의 일이지만 각 일들은 그 고유한 위치가 있다. 이성과 지성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 성경을 그 원래 배경을 염두에 두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넘시기도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이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감성과 감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탐구하는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전선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B.Sc.), 캐나다 리젠틀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을 (M.C.S., Th.M.),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구약학을(D.Phil.)에서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가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곧 출판된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를 하고 있다.